

T3 성문암의 치료성적(Transglottic vs Pure Glottic Carcinoma)

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이비인후-두경부외과학교실

나 홍 식* · 정 광 윤

목적 : 일반적으로 경성문암은 성문암에 비해 경부림프절 전이가 많고 예후가 안좋은 것으로 알려져있다. 저자들은 진행된 병기인 T3에서 성문암과 경성문암의 경부전이율과 생존률 등을 비교하여 경성문암의 예후를 알아보았다.

방법 : 1990년 7월부터 1999년 7월까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구로병원 이비인후과에서 T3 경성문암 및 성문암으로 진단된 후 수술을 초치료로 선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치료종료 후 최소 2년이상 추적관찰이 가능하였던 22례를 대상으로 하였다.

결과 : 환자들은 모두 남자이였으며 경성문암은 12례, 성문암 10례이었다. 경성문암과 성문암의 경부전이율은 각

각 41%(5/12)와 30%(3/10)로 경성문암에서 높았으며, 2년 생존률은 75%(9/12) 및 100%(10/10)로 경성문암에서 낮았다. 진단시 호흡곤란이 있었던 경우가 6례, 진단 후 응급 기관절개가 필요했던 경우는 3례가 있었으며 이들의 2년 생존률은 각각 50%(3/6)와 33%(2/3)로 매우 낮았다.

결론 : T3 병기의 경성문암과 성문암을 비교할 때 경부림프절 전이는 경성문암에서 많았으며 2년 생존률은 경성문암에서 낮게 관찰되었다. 또한 진단 시 호흡곤란이 있거나 응급 기관절개가 필요한 경우 불량한 예후를 보였다.